

# 시뮬라크르(simulacre)로 분석한 조선족 시문학의 '고향' 이미지

-김학송의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를 중심으로-

연변대학교 중.한 비교문학 연구생 김미란  
(연변대학과학기술학원 동양어학부)

## 1. 들어가며

인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 형상들이 있다. 고향에 대한 것이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듣기만 해도 애틡함이 솟아오르고 눈에 눈물마저 고이게 하는 단어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추억으로 또 혹자는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의 편린으로 고향을 떠올릴 것이다. 어떠한 정서와 이미지로 생성되었든 고향이 우리에게 아련한 울림을 주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고향을 떠나온 중국 조선족들의 가슴속에는 대를 이어오면서 전승되는 고향에 대한 각별한 의식이 있다. 이는 조선족 문학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소설이나 시 또는 다양한 문학 장르 속에 나타나는 모티브는 고향이다. 이와 관련된 작품들이 고향을 떠난 후 중국 정착과 함께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 그리고 한 없는 회귀의 응어리를 녹이는 카타르시스로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간의 관념은 점차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문학에 표현되는 어휘를 인식하는 독자들의 이미지도 점차 변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문화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보들리야르의 이론으로 주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원본의 상실'로 해석되는 '시뮬라크르(simulacre)'의 관점에서 시인 김학송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향'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 시뮬라크르는 철학에서 시작하여 문학뿐만 아니라 회화, 영화와 같은 시각적 예술 분야와 경제학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파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문화와 관념에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시뮬라크르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분석의 기본 자료가 되는 중국 조선족 시 작품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와 그 근거가 되는 문학사적 흐름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주제인 김학송의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를 통하여 묘사되어 있는 '고향' 이미지를 시뮬라크르 즉 '원본의 상실'의 관점으로 연구한다.

## 2. 문학과 시뮬라크르

현대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시뮬라크르는 이미 고대 철학자 플라톤(Platon. B.C. 427 ~347)의 '이데아'<sup>1</sup>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대 철학자 들뢰즈는 플라톤에 반기를 든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 후 들뢰즈와 또 다른 시각의 이론을 내세운 장 보드리야르의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을 비롯하여 예술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복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을 통한 복제물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문학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문학과 문학평론에 접목되었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미지의 문학이라고까지 불리는 시의 평론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메타포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관련하여 시뮬라크르의 시각으로 분석해 본다.

### 2.1. 시뮬라크르란 무엇인가?

'원본의 상실'이라고 해석되는 이 '시뮬라크르(Simulacre)'라는 용어는 고대 철학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플라톤으로부터 사용되어 오던 개념이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을 의미하는 철학개념이다. 원래 단어가 가진 뜻은 가상, 거짓 그림 등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다시 말해 시늉, 흉내, 모의, 복제, 모사 등을 의미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sup>2</sup> 1981 년에 저술한《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묘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은 플라톤이나 플라톤을 반박했던 들뢰즈와의 견해와는 상반되거나 다른 것이었다. 복제의 의미인 시뮬라크르의 동사는 시뮬라시옹으로 복제화 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

<sup>1</sup> 이데아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 중 가장 유명한 이론이다. 우리 인간은 동굴(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아서 사물의 희미한 그림자만 볼 뿐, 참다운 진리를 보지 못한다. 죄수가 동굴의 밑바닥을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야만 사물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념(Idea, 이데아)의 세계로 비약해야만 보편적인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데아(개별적인 사물이 소멸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불멸의 원형, 감성적 사물의 모범이자 개별자에 실현되어야 할 이상)를 만날 수 있다.

<sup>2</sup> 장 보드리야르(프랑스어: Jean Baudrillard, 1929년 7월 27일~2007년 3월 6일)는 대중과 대중문화 그리고 미디어와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미디어 이론가이다.

말이다. 원본에 대한 복제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어떤 절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절하 될 수 없다고 장 보드리야르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일반적으로 자리잡은 관념과 문화의 큰 흐름에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sup>3</sup> 그래서 전세계의 회화, 사진, 판화, 영화와 미디어 매체 그리고 문학에까지도 접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재생산이 가치 있는 창작의 개념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예술 장르에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주된 표현 방법인 공상과학 분야와 사이버 공간에 관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기술적인 복제를 통한 예술작품이 더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가는 현대문화의 토양에서 '원본'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제되고 그것을 다시 복제한 작품들이 원본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에 입각하여 복제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시각으로 주제를 분석해 본다.

## 2.2. 문학과 의 연관성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뮬라크르로 문학을 바라보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 표현되는 어휘나 이미지는 원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복제 또는 대체되어 개념이나 이미지로 정착된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제물이나 이미지화 된 것들이 실제 원본보다 더 실재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존의 인물을 묘사한 이미지는 이미 작가에 의해 복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 인물 원본의 실재보다는 문학 작품을 통해 복제된 결과물로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이미지화 한다. 이것이 바로 '원본의 상실'이라는 기본 개념의 출발로 이해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자신이 주장하는 시뮬라크르 이론에서 복제된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이미 선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되는 복제성을 지닌 문학 요소는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시의 경우 특정 시어를 통한 원본 이미지의 복제성과 메타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문학 속에서 이 복제에 대한 가치 부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플라톤의 이데아에 관한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지와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만일 진리에 다가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미지를 멀리 해야만 한다고 본다.<sup>4</sup> 그러나 보드리야르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이 원본이 가지

<sup>3</sup>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12.

<sup>4</sup> 박치환, 《이데아로부터 시뮬라크르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p.26.

는 가치와 달리 복제된 것 그리고 복제에 복제를 거듭한 산물에게까지 특정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토대로 21 세기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마치 진리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자리잡고 있다.<sup>5</sup>

보드리야르의 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긍정과 부정의 반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적인 비판 속에서도 그의 이론을 도입한 작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와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모티브가 점차 일상적이 되어간다. 예를 들면, 최근 영화 ‘매트릭스’<sup>6</sup>는 시뮬라크르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영상예술이며 ‘영화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는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출발은 시나리오였다. 이렇듯 문학 분야에서도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 2.2.1. 시뮬라크르로 바라본 문학비평

문학비평은 문학 작품을 정확히 식별한 후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 단계를 거쳐 작품을 전체적으로 감상하고 작품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sup>7</sup> 비평은 이미 기원전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주장했던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C 384~ 322)가 《시학》으로 맞선 때부터 시작되었다.<sup>8</sup> 이렇게 출발한 문학비평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관념적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순수문학에서 벗어나 다른 예술 장르와 융합을 이루면서 복합적인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생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파생된 문학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계의 변화적 상황 속에서 문학비평에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

<sup>5</sup> 위의 자료, p.89.

<sup>6</sup> 영화 매트릭스는 1999 년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한 사이버 펑크 영화로 화려한 액션신 이외에도 철학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던 작품이다. 매트릭스에서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외에도 시뮬라크르와 관련하여 실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현실과 모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라진 상황을 다루는 영화 중에 가장 일관되게 철학적인 면을 유지하는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다.

<sup>7</sup> Daum백과 참조.

<sup>8</sup> 이명재.오창은 공저, 《문학비평의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경진, 2010.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확산된 예술 융합의 한 요소로서 창작되는 문학의 경우 이제까지의 전형적인 접근으로는 변화된 문학의 특성을 정확히 고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문학에 대해 새롭게 적절한 관점의 비평이 대두되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라크르로 분석한 문학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보드리야르의 이론과 정의가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은유와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존재성과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복제'라는 개념은 원본을 가지고 재창조한 영화, 회화, 문학작품 등의 결과물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더 나아가 연구 주제가 되는 시작품에 나타나는 어휘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 3. 조선족 문학의 '고향' 이미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 실존적 존재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귀의 근간으로서도 고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동서양을 초월하여 주된 이미지는 그리움과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도시화의 급진적 변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여전히 동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이미지 분석에 앞서 보편적인 고향의 형상에 대해 언급해 본다. 더 나아가 김학송 시인이 속해 있는 중국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고향의 형상을 파악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 연구해 본다.

#### 3.1. '고향'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

'고향'의 뜻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9</sup> 이같이 '그림고 정든 곳'으로 고향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혹자는 다른 형상으로 고향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향에 대한 두 가지 보편적 이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고향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움'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는 '고향의 상실'에 관한 이미지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sup>9</sup> 위키 백과 참조.

첫 번째, 고향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움'에 대해 살펴보자. 고향은 조상이나 두고 온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곳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는 공간이며 때로는 마음속에 간직한 특별한 사람이 있던 곳이기도 할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그리움에 대한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예술가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회화나 영화 또는 문학 등과 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 모사물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면, 영화를 통해 고향을 그려내는 예술가들이 있다. 중국의 장예모 감독 또는 한국의 임권택 감독과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감독한 영화 속에서 내재해 있던 고향의 이미지를 모사하여 작품을 만들어 왔다.

작곡가 이원수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가사로 예쁘고 고운 고향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의 그리움에 동일시된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정지용의 <향수>, 노천명의 <고향>, 이은상의 <가고파>, 백석의 <정주성>, <고향> 등과 같은 많은 시들도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김동환의 <붉은 산>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암적 존재로 취급 받던 주인공 '삼'이 죽어가면서 '고향의 붉은 산과 흰 옷 입은 사람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들 외에도 전세계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흡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그리움 외에 부정적인 그리움도 존재한다. 순탄치 않은 고향에서의 삶이나 그곳에서의 어려웠던 고통의 기억들이 지닌 사람들도 있다. 그 경우라면 마음 속에서 고향을 지워내고 묻어 버리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또 다른 형태를 지닌 그리움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고향은 애뜻한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기억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보편적인 이미지는 '고향의 상실'에 관한 것이다. 그 원인의 하나는 현대적인 문명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생활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의 발전과 도시화와 같은 현상은 인간성 상실과 개인주의 팽배와 같은 부산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로 인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환경이 변화되고 관념과 정서가 점차 파괴되거나 바뀌고 있다. 고향에 대한 이미지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도시화와 핵가족 또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있다. 또한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그 이전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고향'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개념이나

동질의 향수를 누리기 쉽지 않는 정서로 살고 있다. 이것은 시공간적으로 공유 되어오던 고향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를 상실해 가게 한다.

그 이외에 '고향의 상실'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낯선 곳에 삶의 터전과 정서마저도 옮겨와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을 인해 고향이라는 공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실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도 이러한 유형의 상실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중국 땅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지는 정서였으며 '긍정적인 그리움'과 '고향의 상실'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 복잡한 감정들이 문학에도 처절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정서와 형상을 가진 조선족 문학의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고향 이미지를 찾아본다.

### 3.2. 조선족 문학의 '고향' 이미지 변화

조선족 1세대에서 출발한 문학은 떠난 고향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외부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품고 망향가를 불러내는 것으로 그 아픔을 달래왔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당사자들이고 또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그들 고향에 대한 전달자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족 문학 모두가 고향 만을 주제로 삼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정서는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의 모티브와 정서가 개혁개방 이후에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서와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개혁개방 이후의 조선족 문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이념적 대립의 약화 내지 소실과 더불어 민족문학의 개성적 발전도 밝아졌다. 중국 조선족문학은 여전히 이중문학의 성격을 띠고 중국문화권내의 하나의 소수민족문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계급투쟁을 기본 고리로 하던 극단정치가 물러가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개성적으로 자기의 문화권을 확립하고 발전시켰다.

둘째, 외래문화의 직관적 수용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나라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세계의 정상급 문명과 세계적 감각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자신들의 문화권의 범위와 지위가 상승되고 외래문화의 접촉 내지 수용이 훨씬 직접적일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한중 수교를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문학은 변두리문학으로부터 일약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두 문학의 교량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주체정신의 정립 기회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가 사회의 중요한

경제행위가 되고 소유제가 병존하는 시대에 국가는 절대적인 가부장제적 대가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단순하고 책임이 직접적인 핵가정으로 세분되었다. 절대적으로 국가제도적인 보호와 계획적인 공급에 힘입던 민족문학의 기틀이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미쳐 자기의 활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도태 당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하지만 민족의 활력과 창조적인 주체정신의 정립에 각성과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sup>10</sup>

물론 이것은 개괄적인 조선족 문학의 변화에 관한 정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개혁개방 이후에는 다각적인 변화요소가 작용하여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양상의 문학이 진행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것은 세계문학의 흐름을 깨닫게 했고 새로운 문예사조를 흡수하는 통로를 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학의 주제와 감성이 이전과 다르게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조선족 문학의 변화와 특징 속에서 시 문학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 3.2.1. 시를 통해 분석한 ‘고향’ 이미지의 변화

오랜 세월을 두고 창작된 조선족 문단의 모든 시들을 분석하여 고향 이미지를 연구하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간략하게나마 접근해 본다.

최근 발간된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 년》<sup>11</sup>이라는 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서의 변화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 책은 100년 간의 중국조선족 시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머리말에는 이 책에 실린 시의 선택은 주로 작품이 담은 정신세계와 예술기법을 결합하여 고찰하는 표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쓰고 있다.<sup>12</sup> 여기에 실린 228수의 시 작품에는 대체적으로 중국 조선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는 ‘고향’, ‘어머니’, ‘고향의 기억’, ‘풍경과 자연’ 등 떠나온 고향과 그에 연관된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나는 중국조선족 문학의 특징은 시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민족문학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고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주체적인 활력이 시 작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진화를 거듭했다. 그 증거로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 년》에 실려 있는 1992년 이후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근거가 되는 시 작품의 제목과 시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옮겨본다. 여기

<sup>10</sup> 차호걸, <광복 후 중국조선족 문학사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20~21.

<sup>11</sup> 김응준 외,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 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sup>12</sup> 위의 자료. p.p.1~2.



에서 창작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배제하여 작품을 책의 목록대로 제목과 시인 그리고 창작연도와 페이지를 서술하였다.

1. <할아버지의 목침>-황상박(2011)/p.131.
2. <노크소리>-리복(2002)/p.142.
3. <두만강>-황장석(1995)/p.149.
4. <눈 오는 아침>-허흥식(1997)/p.153.
5. <또 하나의 나>-최문섭(2000)/p.157.
6. <안개>-심정호(2009)/p.159.
7. <차 잔에 기대여>-김파(2006)/p.162.
8. <욕망>-김파(2005)/p.163.
9. <겨우살이>-한춘(1993)/p.168.
10. <아버지의 초상>-강효삼(1997)/p.170.
11. <고추타래>-강효삼(2008)/p.171.
12. <새둥지와 개구리 그리고 바다-북경올림픽 개막식을 보고>-최룡관(2008)/p.178.
13. <민들레>-김철학(1993)/ p.180.
14. <도약>-김철학(2007)/p.182.
15. <안개의 강>-김동진(1997)/p.183.
16. <온성다리>-김동진(2003)/p.184.
17. <말하는 이끼>-김동진(2005)/p.185.
18. <빨래줄>-김영능(2009)/p.187.
19. <낚시>-김영능(2011)/p.188.
20. <구두 한켠>-김응룡(2011)/p.190.
21. <등 굽은 버드나무>-김응룡(2002)/p.191.
22. <기다림>-김응룡(2006)/p.192.
23. <굴-대련에서 굴을 까며>-최기자(2009)/p.194.
24. <버려진 자전거>-최기자(2008)/p.195.
25. <자라곰탕>-리문호(2002)/p.197.
26. <벽계수>-리문호(2001)/p.199.
27. <털소>-남영전(2007)/p.206.
28. <앵두>-김문세(1993)/p.208.
29. <도시>-김문세(1993)/p.209.
30. <나이장사>-전병철(2012)/p.211.
31. <새>-김철호(2006)/p.219.
32. <락엽이야기>-김성우(1997)/p.224.
33. <예감의 새>-김학송(1993)/p.225.
34. <청보리>-김학송(2003)/p.2003.
35.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김학송(2000)/p.228.
36. <바다>-전춘식(1995)/p.229.
37. <민들레>-오정묵(2001)/p.231.
38. <폭포>-오정묵(2001)-p.232.
39. <가을소식>-김학천(1996)/p.235.

40. <모아산>-리성비(2000)/p.238.
41. <투우>-리성비(2004)/p.239.
42. <봄냄새>-김일량(2010)/p.252.
43. <버드나무 숲>-김일량(2003)/p.253.
44. <진달래꽃 4>-윤청남(2010)/p.261.
45. <홍시 9>-윤청남/p.263.
46. <구름 아래 흘러가는 마을>-정호원(2004)/p.264.
47. <마음에 날아드는 새-조선유람일기에서>-석문주(2006)/p.266.
48. <고향의 돌배나무 앞에서>-석문주(2000)/p.268.
49. <손목시계>-박장길(2009)/p.269.
50. <가을들판>-박장길(2011)/p.270.
51. <양파의 진실>-리홍규(2005)/p.272.
53. <새처럼 나무처럼>-리홍규(2003)/p.273.
55. <소라>-신현철(2005)/p.275.
56. <사막>-림금산(2001)/p.277.
57. <초가>-림금산(2005)/p.278.
58. <못난 사람>-권인호(2004)/p.282.
59. <물소리가 들리고>-김경희(2004)/p.286.
60. <어머니>-리순옥(2003)-리순옥/p.291.
61. <죽보>-리순옥(2005)/p.294.
62. <종>-송미자(2007)/p.295.
63. <초가>-최화길(2005)/p.298.
64. <작은방>-주성화(2004)/p.300.
65. <불혹의 하산>-박문파(2003)/p.301.
66. <쓰레기장 풍경>-심예란(2007)/p.303.
67. <엄마의 등>-심예란(2011)/p.304.
69. <시골러행>-김영건(2008)/p.306.
70. <원두막>-김영건(2008)/p.307.
71. <숲>-리영건(2008)/p.308.
72. <슬윽차>-김선희(2007)/p.312.
73. <단풍>-김승종(1998)/p.314.
74. <자화상>-박정웅(1998)/p.317.
75. <늙은 량주>-윤영애(1996)/p.318.
76. <밤차>-김혁(1993)/p.321.
77. <바위섬은 만남을 위해 태여났던가>-김창희(2002)/p.323.
78. <겨울 낚시질>-지영호(2006)/p.325.
79. <아리랑>-허동식(2007)/p.326.
80. <깡통의 꿈>-박명순(2007)/p.328.
81. <나는 물이다 내게 무슨 상처라>-한영남(2008)/p.329.
82. <숨은 드라마>-박춘월(2005)/p.332.
83. <목마의 슬픔>-조광명(1997)/p.333.

84. <인우구망>-조광명(2006)/p.334.
85. <현대 승냥이>-김영춘(1997)/p.336.
86. <커피>-김영춘(1999)/p.337.
87. <벌써 사십대>-김현순(2010)/p.339.
88. <성밖도 성이다-북경 왕징에서>-전춘매(2007)/p.342.
89. <추석>-전춘매(2009)/p.345.
90. <차표 한 장>-허옥진(2005)/p.347.
91. <미역>-심명주(2006)/p.349.
92. <차를 마실 때 당신을 사랑할 때>-김춘택(2009)/p.352.
93. <슬픈 리유>-리창현(2008)/p.354.
94. <때밀이 김씨>-리범수(2005)/p.358.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작품의 제목만으로도 개혁 개방 이후의 시에서는 이전에 보여줬던 주제와는 다른 모티브들이 대거 등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향'이나 '민족' 그리고 '그리움'과 '회귀'에 대한 것들에서 점차 다른 관심으로 확대 되어감을 보게 된다. 시의 내용이 제목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실제로 고향의 상실을 경험한 세대와 중국에서의 생활에 적응된 그 이후 세대와의 관념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선족 시 문학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독자들의 요구와 맞물리는 작업이기도 했을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과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 더욱 가속화된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의 해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다수 조선족의 국내외 이주 등의 급격한 상황 변화의 도래는 독자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sup>13</sup> 이러한 격동기를 거치며 살아가는 독자들도 이전의 시대에서 보여주는 '고향'과 같은 시어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된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제 실제로 주제가 되는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미지의 변화와 그 변화된 실체를 시물라크르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

#### 4. 김학송의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 분석

김학송은 중국 조선족 문학가다. 그는 《사람의 숲에서 사람이 그림다》를 비롯하여 20여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또한 해외동포문학상,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 등을 수상했으며 수필 <태산에 오르며>는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됐다. 그는 향토적인 뉘앙스가 가득한 시를 통해 많은 독자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조선족 문단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가 살아온 시기는 다양한 변화와 격동을 겪어낸 시기이다. 그 시대 속에서

---

<sup>13</sup> 김정훈, 김정미, <한중 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전개양상>,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초록.

시를 통해 중국의 당당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특성과 감성을 지켜나가는 정신적인 햇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연변대학 우상렬 교수는 김학송의 시집인 《고향엔 고향이 없다》의 서평에서 그의 시에는 민족서정, 조선족서정 및 고향서정, 노스텔지어 정서가 있다고 했다. 즉 김학송은 본인이 밝히다시피 어디에 살든 조선족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간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조선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는 그는 민족시인, 향토시인으로 불려도 무방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원로시인 황금찬은 ‘김학송의 시는 읽을수록 정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이며 문학평론가인 신동욱은 그의 작품에 대해 ‘평범한 체험 속에서 근원적인 님을 탐구하는 감격적인 서정을 보여주어 시적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평하고 있다. 중국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회장이며 문학평론가인 조성일은 김학송의 시를 중국 조선족 시문학의 이정표라고 칭찬했다.<sup>14</sup> 이러한 평가가 말해주듯이 시인은 ‘고향’이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 문단의 초기 시에는 고향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향이라는 존재의 시공간적인 변화는 상실의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더구나 빈번하고 용이한 외국과의 왕래와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직접 가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컴퓨터 마우스의 클릭 한번 만으로도 쉽게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전 세대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향에 대한 애뜻한 이미지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김학송의 작품에는 여전히 고향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와 세대의 확연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의 고향의 이미지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가지고 있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시물라크르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sup>15</sup>에서 특히 그 흔적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

#### 4.1. ‘시물라크르(simulacre)’로 분석한 ‘고향’ 이미지

시인은 시로 시대를 말하고 정서를 부여준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과 그 추억의 상처도 어루만져 준다. 독자는 시를 읽으면서 시대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해한다. 시의 힘은 짧은 시어로 강하게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의 간결성과 그 시어가 가지는

---

<sup>14</sup> 2013년 12월 5일 길림신문 기사 참조.

<sup>15</sup> 김응준 외,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p.228.

이미지의 힘이 주는 영향이다. 더 나아가 시에 드러난 시인 화자는 많은 부분을 독자에게 내어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그 시 안에서 또 다른 내포작가의 역할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시는 한 시대의 문학에 있어서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족 문학에서 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공동체가 가지는 처해진 상황을 끝없이 노래했다. 때로는 서로 힘을 내자고 격려하는 손길도 내밀었다. 특별히 중국에 자리잡게 된 조선민족끼리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그리워해 준 이웃과 같은 것이 시문학이었다. 특히 시에는 그 공동체가 공감하던 전형적인 고향에 관한 묘사가 자주 등장했다. 그로 인해 집단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는 유형의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것은 당연한 귀착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이미 언급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점차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문학의 주제와 표현 방법에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살아가는 시인 김학송은 그의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에서 여실히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의 주제에 접근한다. 끝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고향의 상실'이 아닌 '원본의 상실(시물라크르)'의 시각으로 시를 연구하여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본다. 그것은 이미 변해버린 현실로 인해 원본을 상실했다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의 고향이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철학 개념을 문학비평에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선제의 철학개념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시물라크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 '고향'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즉 보드리야르의 이론에서 '복제물에 대한 가치 부여'라는 개념으로만 접근 한다.

## 4.2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에서의 '고향'이미지

2000년에 발표한 이 시는 고향의 상실이 드러나는 듯 하다. 이 작품이 발표되던 시기는 중국의 현대화가 빠르게 시작되던 시기이다. 또한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진출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시기이다. 그로 인해 많은 조선족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 이유로 정서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향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인 고향을 복제해 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명제로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선 김학송의 작품인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의 전문을 살펴본다.

###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

머리 풀어헤친 바람결에는  
 청보리가 흘리는 눈물의 냄새가 난다  
 시간이 느릿한 발걸음으로  
 뒷집 짓고 영을 내린다  
 안개에 찼려 눈 먼 기차가  
 풍경을 밟으며 술병 속으로 들어간다  
 버드나무 숲을 등진 골짜기에선  
 새들의 눈물이 여울져 흐르고  
 해고 당한 소들은 거꾸로 서서  
 빗자루 같은 꼬리로  
 내 유년의 하늘을 지우고 있다  
 옛 이야기 한 토막 부동켜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들어 버린  
 어린 싹들을 하나하나 흔들며 기웃거리려도  
 구름이 낙엽 빛의 소리만 들릴 뿐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

처음 이 시를 마주하고 읽어보면 중국 조선족에게는 집단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고향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이 품고 있는 그의 고향은 청보리가 바람에 흔들거리고 버드나무 숲과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다. 소가 느릿하게 오가고 어린 싹들이 자라나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평화롭고 정감이 흐르는 공간임을 묘사했다.

하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것이 점차 변하고 있고 오히려 이미 사라져지고 있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탄식을 시를 통해 읽고, 보고 또한 들을 수가 있다. 그 변화 이유를 찾아 들어가보면 중국조선족사회가 개혁개방 이후 급작스러운 인구 이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향의 상실이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간적 상실은 새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고향에 대한 기억과 삶의 방식이 흐려짐으로 인해 시간적인 고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민족의 거주지역 해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 또는 중국 내 대도시 등에서의 새로운 패턴의 삶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향'의 이미지가 상실로까지 치닫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시인은 좌절 가운데 외친 것 같다. 시에서는 그러한 내면의 정서가 가슴이 저리게 표현되고 있다. 작품에서 사용된 시어들이 바로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눈물의 냄새가 난다, 술병으로 들어간다, 거꾸로 서서, 지우고 있다, 잠들어 버린, 없다' 와 같은 어휘는 상실감을 갖게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어들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정서들은 다른 각도로 보면 '희미해지는 존재'로 분석할 수 있다. 자신이 고향에 거주하던 시절 확연하게 눈으로 보았던 고향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서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떠올릴 때 고향 모습이 희미한 기억이 되어 결국 원본의 이미지라는 것이 아지랑이 같이 희미한 존재로 증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시를 해석해 보면, 시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화롭고 그윽한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농촌의 한 모습이 시에 담겨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이미 언급한 도시화와 현대화에 밀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가슴에 옛 고향의 모습을 간직한 시인은 자신의 고향을 찾았을 때 이미 사라져버린 것에 좌절하고 애석해 한다는 풀이도 해 볼 수 있다. 이 시에는 고향을 이루고 있던 다양한 요소들이 점차 증발되거나 소멸되고 있음을 주지 시킨다. '시간이 느릿한 발걸음, 안개에 찼려 눈 먼 기차, 새들의 눈물, 해고 당한 소, 어린 숙들, 구름' 과 같은 어휘가 주는 감정은 이미 변화되고 사라지면서 시인과 함께 가지고 있던 공동체의 보편적 고향 상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시인은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라고 시의 제일 마지막 연에서 단호하게 선언을 했다. 그것은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그리움을 기조로 한 운명공동체의 공감적 이미지가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 새로운 각도로 고향 이미지를 분석해 보자. 이미 개념을 정리한 바와 같이 원본이 상실되었지만 복제가 새로운 가치를 형성한다는 보드리야르의 이론으로 연구해 보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 시물라크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시에 나타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복제된 다른 '고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눈물의 냄새가 난다, 술병으로 들어간다, 거꾸로 서서, 지우고 있다, 잠들어 버린, 없다'와 같은 어휘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 보자. '냄새의 이미지, 병속으로 들어간 이미지, 거꾸로 서서 있는 이미지, 지우고 난 이후의 이미지, 잠에서 다시 깨어난 이미지, 없어진 이후에 생성되는 시공간의 이미지'를 생각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새로운 복제로 이미지화 된다. 원본의 복제와 그 복제의 복제마저도 가치가 있다는 이론으로 바라보면 이 시에 나타난 고향의 상실은 상실 이후에 생성되는 복제의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즉 재생산된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의 재생산으로 존재하게 됨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를 읽는 독자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의해 없어져 버린 원본 자리에 자신만의 복제된 결과물인 고향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오래 전에 시인과 흡사한 시대와 경험을 겪어 온 조선족 1세대 독자들도 이러한 개인적 이미지를 안착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김학송 시인이 가지고 있던 집단적 공감대의 이

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소극적인 복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소용돌이와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조선족들이 변화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전자와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로 복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미 앞서 언급한 이 특징을 소유한 모사물로서 고향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롭게 형성된 고향 이미지의 가치는 시인이 없다고 말해버린 원래의 고향 이미지와 다른 가치를 지닌 새로운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결과를 맺게 된다.

시인이 시를 완성하고 발표하고 나면 시는 이미 시인의 것이 아니다. 독자와 공유하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학송 시인의 고향은 이미 독자들 나름의 고향 이미지로 복제되어 버린다. 이러한 모사물의 이미지는 시대마다 또 주어진 환경마다 모두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다 보면 복제와 다시 복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제가 거듭되면서 고향은 계속 진행되는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각자가 지닌 정서의 세계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숨을 쉬며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없다'고 선언해 버린 시인의 선언은 자신의 독백이 되어버리고 여기에서 독립된 독자들은 각기 모사된 자신들의 고향을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만 할 부분이 있다. 장 보르리아르의 시물라크르의 이론이 부정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재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속선을 지닌 재현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원본이 사라진 복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출현시켜 원본 자체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 요소는 이제까지의 전통과 예술에 대한 독창성들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 분석에서도 그것이 가지는 전형적 원본의 요소가 끊임 없는 복제와 거듭된 그것들의 복제에 의해 오히려 혼잡함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거듭되는 재생산의 결과 김학송 시인의 고향의 이미지가 그 원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 5. 나아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 시문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이것을 야기시킨 여러 요인도 이미 언급해 보았다. 그리고 독자들도 세대간의 많은 관념



과 정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찰해 보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주제로 다루어 본 '고향'이라는 이미지도 각 사람마다 다르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일 수 밖에 없다. 그에 근거한 '고향'에 대한 감정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향 이미지는 막연한 '그리움'과 추억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것도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도시화 그리고 글로벌화 되는 현상에 의해 점차 '상실'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고향 이미지는 중년층 또는 청년 계층과 어린 세대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 원인으로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독자들에게 각기 다른 모사로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김학송의 시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를 분석해 보았다. '눈물, 해고, 술병'과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며 자신의 옛 고향의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해 쓸쓸해하는 시인의 독백에 대해 시물라크르를 적용하여 분석했다. 즉 그 고향이 다시 새로운 이미지의 고향으로 재생산 되어 있음을 시인 자신과 독자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고향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복제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 결과물이 각각 다른 형상으로 자리잡았다고 해서 '원본의 상실'로 인한 무가치라고 해서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인류 각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 관한 이미지의 모사물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함께 변하게 된다. 그 이미지는 원초적인 형상으로나 농촌의 고즈넉한 풍경이 될 수 있다. 또는 도시의 현대화된 아파트에서의 삶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는 최첨단 과학의 이미지로 떠오를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른 고향에 대한 복제물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모사되어 버린 이미지 그 자체로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학송의 작품 <고향에는 고향이 없다>에서 드러난 '예전의 모습을 지닌 고향이 없는 것'이라는 게 상실이 아니다. 오히려 '원본의 상실'로 인해 시인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재생산된 가치 있는 또 다른 '고향' 이미지로 안착했다고 보는 것이다. '고향이 없다'라고 쓸쓸해 하는 시 속에서 화자의 말이 끝나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인과 독자들 모두는 이미 가치 있는 복제된 새로운 고향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보들리야르의 이 이론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즉 원본이 아닌 복제가 원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술의 독창성과 가치를 붕괴시키는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학송이 작품에서 풀어냈던 고향의 이미지가 수 많은 복제에 의해 원본이

가지는 정서와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 조선족이 선조들부터 가지고 있던 집단적인 동질의 아련한 고향 이미지를 보내는 씁쓸함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 참고자료

- [1] 김응준 외,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 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 [2] 우상렬, 안해숙, 《중국주류문학 콘텍스트 하에서의 조선족문학》,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12.
- [3]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시학》, 연변인민출판사, 2014.
- [4] 박치환, 《이데아로부터 시물라크르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 [5] 조성호, 《철학 에세이》, 동녘, 2013.
- [6] 프로이트, 박정수, 《꿈의 해석》, 두리미디어, 2012.
- [7] 김혜숙, 김혜련,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8] 차호걸, <광복 후 중국조선족 문학사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9] 김정훈, 김정미, <한중 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전개양상>,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10] 겨레어문학,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시문학의 민족정체성 구현양상 연구>, 겨레어문학회, 2013.
- [11] 강지영, <1930년대 후반기 현실주의 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